

92

전선 탈피 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

성별	여	나이	38세	직종	생산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박○○(여, 38세)는 2000.3.2 S사에 입사하여 2003.3.까지 전선탈피작업과 전선에 납물입히는 작업을 하였다. 2003.3. 부천 순천향 병원에서 경피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2 작업환경

박○○는 전선파워코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전선을 타업체에서 납품받아 후가공(단자작업, 탈피작업, 납작업)을 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이 생산 공정중 근로자는 주로 탈피 작업과 납작업을 하였다. 탈피 작업시 하얀 돌가루가 많이 날렸고 납 작업시 냄새가 많이 났다고 주장하였다. 호흡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전선 작업은 하루 수 천개 정도 하였고 단자 작업시 사용하는 PVC는 한달 2000kg 정도 사용하였다. 전선 속 내연재로 사용되는 하얀 돌가루는 활석이었으며 물질보건안전자료상 60% 정도 실리카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그 중 결정형 실리카는 성분 분석상 2.1% 정도 함유되어 있었다. 현장 조사 결과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가장 굵은 것은 9mm, 보통은 5~6mm 정도의 굵기였으며 노출량이 많지는 않았다. 사출성형작업시 PVC도 노출 정도가 작았으며 근로자 박○○은 간접적인 노출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박○○은 2002년 9월말 경부터 몸이 붓고 피부가 가렵고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색이 검게 되고 당기는 증상이 있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없이 2003년 3월 부천 순천향 병원에서 피부조직검사 시행하였고 경피증으로 진단받았다. 임상 병리검사상 항핵항체(ANA) 양성이었으며 류마티스인자는 음성이었다. 지금까지 건강 진단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다. 경피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30~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유병율은 십만명당 19명에서 75명사이로 보고 되고 있다. 원인은 대개 후천적이며 특별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우이며 일부 직업·환경적인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보고된 경피증이 발생하는 실리카와 여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간은 4년에서 45년 정도로 알려져있다.

4 결 론

박○○의 경피증은

- ① 경피증으로 확진되었고
- ② 3년 간 전신 피복 작업에서 실리카가 포함된 활석과 PVC에 노출되었으나
- ③ 노출량과 기간을 고려할 때 노출 정도는 매우 미약하여,

근로자 박○○의 경피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